

내 입맛에 딱 맞는 한잔... 글라스 와인 '솜마카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3

“각자 지금까지 드신 와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골라주세요. 한 잔 더 드립니다.”

어색한 듯 친숙한 멘트다. 맞다. 오마카세에서 셰프가 앵콜시를 주문받듯 소믈리에가 마지막 한 잔으로 앵콜와인을 따라낸다.

일식에 오마카세가 있고, 정겨운 노포에 '이모카세'가 있다면 우리 한국 와인 바엔 '솜마카세'가 있다.

원래 오마카세는 '맡긴다'는 의미의 일본어 '오마카세루(任せる)'에서 유래한 말이다. 셰프에게 메뉴 선택을 온전히 맡기는 식사 방식이다. 그러니 솜마카세는 소믈리에가 그날그날 곁들일 음식이나 고객의 취향에 따라 글라스 와인을 맞춤형으로 내놓는 와인판 오마카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와인바 사브서울은 원하는 가격대와 취향을 말하면 소믈리에가 글라스 와인(By the glass)을 코스로 구성해주는 솜마카세를 선보였다. 사브서울 뿐 아니라 와인 수입사 아



사브서울 이주혁 헤드 소믈리에가 솜마카세 서비스를 위해 고객에게 와인 취향을 묻고 있다.

영FBC는 무드서울과 더페어링 등 직영 매장을 중심으로 글라스 와인 캠페인인 '한 잔의 서울(A Glass of Seoul)'을 진행 중이며, 한 병이 아닌 한 잔 단위로 와인을 파는 글라스 와인보다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글라스 와인은 이전에도 있었다. 쉽게는 어디서든 가볍게 한 잔 시킬 수 있는 하우스 와인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와인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팬데믹 이후 와인 열풍이 불면서 일부 매장에서 와인 디스펜서를 설치해놓고 글라스 와인을 선보였지만 비싼 기계값과 함께 차지하는 공간까지 감안하면 제한



글라스 와인 코사인 솜마카세에서 선보인 와인들. /안상미 기자

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글라스 와인은 선택권이 넓어진 것도 물론 자체가 와인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 혹은 문화가 되었다. 취할 때까지 마시는게 아니라 즐겁게 한 두 잔, 같은 가격이라면 적당한 와인 한 병보다 기억에 남을 단 한 잔을 마시겠다는 그런 문화 말이다.

여기에 신기술은 글라스 와인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시켰다. 와인 보존시스템 코라빈(Coravin)이다. 마개 코르크에 아주 얇은 바늘을 찔러 넣어 와인을 따라낸다. 천연 코르크에서 미세한 바늘구멍은 저절로 막히고, 와인이 있던

공간은 질소가스가 들어가 산화되지 않는다. 와인병 오픈 자체를 안하고 공기 접촉도 없으니 몇 주,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 와인의 맛이 변할 리 없다. 일반 와인 뿐만 아니라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도 최대 4주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브서울의 경우 주문가능한 글라스 와인만 무려 300종이다. 관련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최다 수준이다. 홍콩이나 미국에서 글라스 와인을 전면으로 내세운 대형 와인바도 150종 이상(150+ by the glass)이 전

부다. 맞춤형 글라스 와인 코사인 솜마카세도 방대한 리스트 덕분에 가능했다. 3만 9000원부터 시작되는 가격대마다 5잔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샴페인 애호가라고 하면 샴페인을 다양하게 3잔 정도 마시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한 잔씩 내놓는 식이다.

오마카세 처럼 솜마카세 역시 소믈리에와의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사브서울의 이주혁 헤드 소믈리에 "와인은 고객별로 선호하는 와인 취향과 함께 주문한 음식에 맞춰 선택한다"며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화이트 와인을 선호하는 고객이라면 오크 숙성 등 좀 더 무게감 있는 와인으로 페어링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smahn1@metroseoul.co.kr



와인을 오픈하지 않고 남은 와인을 보존하는 코라빈 시스템으로 와인을 따르고 있다. /이영FBC

문화 단신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온라인 생중계

카카오창작재단 타이틀 스폰서 멜론 모바일 앱·유튜브 채널 중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밤 8시부터 국내 문화 콘텐츠 창작자를 지원하는 카카오창작재단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을 멜론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위드 카카오창작재단'으로 진행된다. 앞서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등 종합 부문과 장르 부문을 포함해 총 26개 부문의 후보가 공개된 바 있다.

시상식은 멜론 모바일 앱과 유튜브 내 멜론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시상식 종료 직후에는 수상작을 모은 플레이리스트가 멜론에서 공개되며, 시상식 비하인드 콘텐츠를 담은 매거진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대중음악상은 2004년 시작된 국내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평론가와 음악 전문 기자, 방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후보와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중성과 음악성을 함께 평가하며 장르와 상업성의 경계를 넘어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조명해왔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이번 시상식과 연계해 신인상 후보를 대상으로 '카카오창작재단&멜론 뮤직 커넥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사를 거쳐 신인상 수상자와 후보자에게는 앨범 제작비를 지원하고, 발매 이후에는 멜론을 통한 홍보도 이어질 예정이다.

카카오창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창작자 지원과 음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디 음악 페스티벌 후원과 신인 아티스트 지원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메가박스, '메가온리' 3월 라인업 공개... 투어스 콘서트 등 개봉

7일 라이즈 월드 투어 단독 생중계

메가박스가 오직 메가박스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단독 콘텐츠 브랜드 '메가온리(MEGA ONLY)'의 3월 라인업을 공개했다.

먼저, 4일에는 '주술회전', '체인소 맨' 등을 제작한 MAPPA가 선보이는 '좀비 랜드 사가: 유메긴가 파라다이스'가 개봉한다. 좀비 아이돌 '프랑슈슈'가 우주적 위협에 맞서는 전대미문의 좀비 아이돌 SF 히어로 무비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 관객상을 휩쓸며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찬사를 얻은 이탈리아 영화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도 4일 개봉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투표가 임박한 1946년 이탈리아에서 동화보다 아름다운 엔딩을 꿈꾼 '델리아'의 발칙한 시크릿 플랜 무비다.

그룹 TWS(투어스)의 첫 번째 VR 콘서트 '투어스 브이알 콘서트 : 러쉬로드'은 4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단독 개봉한다. TWS 특유의 청량한 에너지와 자유롭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입체적인 스테이징과 감각적인 카메라 위

크, 그리고 현장감을 극대화한 사운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7일에는 전 세계 21개 도시를 매료시킨 라이즈(RIIZE)의 첫 월드 투어 서울 피날레 콘서트를 국내 극장 단독으로 생중계하고, 13일에는 메가박스 단독 개봉작 최고 흥행에 빛나는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닥트 어택'이 개봉 1주년을 맞이해 돌비 포맷으로 부활한다.

25일에는 오스카 수상자 이안 감독이 베스트 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시각적 절작 '라이프 오브 파이'가 재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이앤이코리아, '네고왕' 새 시즌 MC 장윤정 발탁

새로운 '네고왕' 3월말 공개 예정

에이앤이코리아 달라스튜디오가 웹예능 '네고왕'의 새로운 MC로 장윤정(사진)을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

'네고왕'은 소비자 의견을 모아 기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의 웹예능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그동안 황광희, 장영란,



딘딘, 슬리피, 흥현희, 김원훈 등이 MC를 맡았으며 누적 조회수 4억3000만 회를 기록했다.

새 시즌 MC로 합류한 장윤정은 대중적 인지도와 친숙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을 통

해 시청자 타겟을 전 세대로 확대하고, 국내외 시청자를 아우르는 콘텐츠 구성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제작사 측은 장윤정의 안정적인 진행 능력과 소통 방식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이 진행하는 새로운 '네고왕'은 오는 3월 말 달라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서 "한 달 안에 전쟁 끝나길 바란다"
▲ 젤렌스키, "정상회담만이 문제 해결하고 전쟁 끝낼 수 있어" /사진 뉴시스

▲ 美 국무부 "이란 ICBM 개발 추진 큰 문제... 외교 해결 길 열려 있어"
▲ 마크롱, 다음 달 2일 '佛 핵 억지력 유럽 확대' 구상 공개

▲ 호주 정부, 미-이란 전쟁우려 이스라엘 주재원 가족 철수 명령
▲ 네덜란드 국적항공사 KLM, 3월부터 이스라엘 행 전면 중단